

배설물 위에서 살던 강아지 ‘바다’



하재영
팅커벨 입양센터 공보팀장, 작가



‘바다’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2014년 팅커벨 프로젝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사진 속 장소는 허름한 창고였습니다. 구석에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엎드려 있습니다. 더러운 창고는 한눈에도 강아지가 지내기에 적절한 환경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얼핏 봐도 강아지는 겁에 질려 있는 듯했지만,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더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닥을 뒤덮고 있던

시커먼 덩어리들, 검은 흙이러니 했던 그것들이 전부 똥이었던 것입니다. 사진에서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한 바닥이 온통 배설물인 것을 보면 창고 전체가 그런 상태일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올린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강아지에게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은 주인이었지요. 똥밭이나 다름없는 창고에 강아지를 가둬놓고 키우는 것도 모자라, 그는 특하면 강아지를 두들겨 팼습니다. 어느 날 강아지는 맞다가 맞다가 결국 주인을 물었습니다. 죽도록 두들겨 맞다 벼랑 끝

에 내몰린 심정으로, 딱 한 번 죽을 각오로 덤벼들었을 강아지에게 반항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개새끼가 감히 사람을 물어?”

그는 자신이 물린 것을 백 배 천 배로 갚으려는 듯 평소보다 더 무자비하게 강아지를 두들겨 팼습니다. 몽둥이를 휘두르고

강아지를 집어던지고 발길질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강아지는 신음과 울부짖음이 뒤섞인 소리를 내며 똥밭을 뒹굴었습니다. 왜 그는 작고 어린 생명에게 그렇게까지 잔인했어야 할까. 사람이 동물을 때리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했을까. 하지만 동물은 맞아죽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을 물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 아니, 어쩌면 그에게는 그런 생각조차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저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는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고 할 일이 없을 때에는 심심풀이 상대가 필요했던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강아지를 때렸고 강아지가 자신을 물자 눈이 뒤집어져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보자는 구조 요청 글에서 강아지가 당하고 있는 여러 학대행위에 대해 이야기한 뒤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강아지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저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구청과 시청에 여러 번 민원을 넣었지만 거기선 고발 대상이 아니라고만 해요. 아니, 고발은 커녕 권고 대상도 아니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이 되어야 동물학대죄가 적용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강아지 주인을 만나 설득도 해봤는데 그 분은 전혀 바뀌질 않아요. 오늘도 창고 앞에 갔더니 강아지가 매 맞으면서 울부짖는 소리가 바깥까지 흘



러나오고 있었어요.’

생후 1년이 채 안 된 암컷 강아지였습니다. 강아지에게는 평생이었던 그 시간 동안 강아지는 오물과 악취가 가득한 창고를 세상의 전부로 알았을 것입니다. 강아지가 만난 사람 또한 아무 이유 없이 두들겨 패는 주인뿐이었겠지요. 킥벨 프로젝트에서는 강아지를 구조하며 ‘바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바다처럼 넓은 세상에서, 바다처럼 깊은 사람들과 살아가길 바라면서요.

바다가 킥벨 입양센터에 입소한 뒤, 직원들은 출근을 하면 가장 먼저 바다를 살피곤 했습니다. 밤새 자기들끼리 있어야 했던 강아지들은 아침에 사람들이 오면 반가워 어쩔 줄 모릅니

다. 큰소리로 짖는 강아지, 팔짝팔짝 뛰는 강아지, 직원들의 다리에 매달리는 강아지, 발을 동동 구르는 강아지... 저마다 행동은 달라도 강아지들이 표현하고 싶은 마음은 같습니다. 반가워, 기다렸어, 우리에게 돌아와줘서 고마워.



하지만 바다는 친구들과 달랐습니다. 그다지 넓지 않은 견사지만 그 안에서조차 거의 움직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바다는 견사 한쪽에 놓아준 플라스틱 집 속에서 항상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면 등을 돌린 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고요. 바다의 이름을 부르는 직원들의 상냥한 목소리도, 바다의 등을 쓰다듬는 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도, 바다에게는 낯설거나 심지어는 소스라치게 무서운 일일 뿐이었습니다.

입양센터의 모든 강아지들이 저마다 아픈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젓이 통통 분 채 새끼도 없이 혼자 발견된 온복이, 카센터에서 방치되다시피 키워지다 주인과 동네 사람들에게 잡아먹힐 뻔했던 방울이, 여름철 피서지에 버려진 성산이, 맨홀에 빠진 뒤 더러운 물구덩이 속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부짖었던 아라... 하지만 처음엔 사람을 무서워하던 강아지들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열곤 합니다. 한 번도 상처받은 적 없다는 얼굴로, 마치 태어날 때부터 사람을 사랑하도록 프로그래밍된 것처럼, 강아지들은 다시 사람을 믿고 따르고 사랑합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지만 강아지들은 기꺼이 그러더군요.



바다가 입양센터에서 보낸 시간은 2년입니다. 학대하던 전 주인과 지냈던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고, 빠르면 며칠 늦어도 몇 달 안에 입양을 가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도 훨씬 오랜 시간을 입양센터에서 보낸 셈입니다. 입양센터에 있는 동안 바다는 끝내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사람이, 세상이 두려운 바다였기에 외출도 불가능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입양 캠페인을 간다거나 목줄을 하고 봉사자들을 따라 산책을 갈 수도 없었지요. 불결한 창고가 깨끗한 입양센터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바다는 자기만의 공간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입양센터에 산책 봉사를 왔던 어느 훈련사 분은 바다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다는 한 사람의 온전한 사랑을 받아야만 마음을 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킥벨 프로젝트 커뮤니티에 바다의 입양 소식이 전해지자,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축하와 응원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바다가 구조된 지 2년이 되었을 무렵의 일입니다.

바다의 새 가족들은 유난히 사랑이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학대당한 강아지를 반려견으로 맞이하여 19년이란 시간을 함께 보냈고, 얼마 전 그 강아지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뒤 다음 반려견으로 바다를 선택한 것입니다. 바다의 가족들이 커뮤니티에 올려주는 글과

사진을 보면 바다의 변화에 새삼 놀라곤 합니다.

‘바다가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서 안절부절 못했었는데 요즘은 꽤 여유가 있어 보여요.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자기 집에서 턱 괴고 가만히 었드려 있고요. 씻기려고 하면 꼭 제 손에서 피를 봐야 했는데 요즘은 무서워서 떨기는 해도 물지는 않아요. 이전 가족들이 나갔다 들어오면 반가워서 짹짹 뛰기도 하고, 쓰다듬어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른 반려견 가정에서는 당연한 일이 저희에게는 매일 감동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저희에게 바다를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입양센터 직원들이 세심하게 돌봐주고 많은 봉사자들이 예뻐 해주어도, 한 사람의 온전한 사랑을 받는 일에 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사랑을 받는 일. 그것이야말로 모든 유기견들의 소망이 아닐까요. ♡